

나스닥 4%대 급락 '쇼크'... 亞 주요국 증시 1% 이상 하락

美 행정부, 주가하락 수용적 태도 불확실성 고조... 안전자산 급부상 "국내 증시도 빗겨나기 어려운 상황"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아시아 증시를 뒤흔쳤다. 11일 한국 코스피는 1% 넘게 빠지며 2530선대로 밀렸고, 일본 닛케이평균은 1% 가까이 하락했다. 대만 자취안지수 역시 2% 가까이 밀려나며 출렁였다. 중국증시도 휘청였다.

이날 주가하락은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휩쓴 영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과도기는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경기 악화를 감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 영향에 미국 3대 주요 증권지수인 다우평균은 2.08%, S&P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2.70%, 4% 내렸다. 나스닥지수 낙폭은 인플레이션 충격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2년 9월13일(-5.16%)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였다.

◆ 금융시장 '트럼프세션' 빨려들어가

이날 코스피는 1.28% 하락한 2537.60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9원 오른 1458.2원에 전장을 마감했다.

다시 고개를 든 'R'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 탓이다. 세계경제가 트럼프발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고, 그러나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5% 감소했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악화된 환경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 통계청의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재화소비를 뜻하는 1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0월과 11월 0.7%씩 감소했다가 12월(0.2%) 소폭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도 전달보다 14.2% 빠졌다.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감소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570.39)보다 32.79포인트(1.28%) 내린 2537.60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25.82)보다 4.32포인트(0.60%) 하락한 721.50에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폭이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6%),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7.5%)에서 줄어든 여파가 컸다. 주요 내수지표 중 하나인 건설경기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전세계 금융시장도 '트럼프세션(트럼프와 침체를 뜻하는 리세션을 합친 말)'에 빨려들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와 같은 2.7%로 유지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를 세계 경제 하방 요인으로 지목하며 보편관세가 무역전쟁을 촉발할 경우 기존 전망치보다 최대 0.3%포인트가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세계 각국이 무역 보호 장벽을 세우면서 성장 동력인 교역량이 크게 줄어들 조짐이 이미 보인다. 교역량의 선행 지표인 컨테이너 해상운임(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은 지난 7일 기준으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 항공 운임(발틱항공운임지수)은 올해 들어 20%나 떨어졌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지난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주식 시장의 하락세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대규모 붕괴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테미스트레이딩의 조 살루치 창업자는 "시장은 이미 현시점에 경기침체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

만, 아직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현시점에서 문제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증시 美 영향권... 경기 민감주 위주 급락

시장 참여자들은 당분간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본다. 실제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은 채권, 특히 초단

기채로 향한다. 대신증권이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판매한 초·단기채 펀드 판매액이 1조970억원에 달했다. 최대경대신증권 고객자산부문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내수 침체, 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증시가 이대로 무너질까. 전문가들은 밸류업 부담 해소와 기업 성장성 의문이 해소되기 전까지 시장이 출렁일 것으로 본다.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자본유출입분석부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누적된 상태"면서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빅테크 업종은 주가에 반영된 시장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이 조정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제지표 둔화 조짐과 함께 무역전쟁 확산에 따른 이익마진 축소 등으로 기업실적 악화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무너진 것은 아니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나 증시 부양 신호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2일 발표될 예정인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도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월 CPI는 0.3% 상승이 예상된다.

국내 증시도 미 증시의 영향권에 있을 전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리가 반영되면서 경기 민감주 위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위주로 많이 빠지다 보니 국내 증시도 빗겨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관세전쟁에 안전자산 선호... 엔화수요 영향

>> 1면 '초엔저 시대 끝...'서 계속

앞서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지난 5일 "완화 수준을 서서히 조정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와 물가 안정을 이루는 길"이라며 "경제와 물가가 예측대로 움직이면 금리를 계속 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도 엔화 가치를 끌어 올렸다. 달러화가 관세 전쟁 여파로 과도한 변동성에 노출되면서, 헤지 수단(자산 가치 변동을 줄이기 위해 기존 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의 엔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한국 등에도 관세 압박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평

가받고 있다. 일본은 주요국 가운데 대(對)미 투자액 규모와 현지 생산 비중이 가장 큰 국가다.

무역 갈등 심화로 달러 선호가 줄면서 달러 가치의 지표가 되는 달러 인덱스는 11일 장중 103.7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5일 치러진 미 대선 이후 최저치다. 반면 엔화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은 이날 달러당 147.27엔까지 하락(엔화 가치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엔화 가치 최고)를 기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일본 국내 금리가 16년 만에 1.5%를 상회하는 등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 확산에 엔·달러 환율이 147엔대로 하락했다"며 "트럼프의 관세정책 등 각종 발언이 외환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가운데 2월 미 소비자물가 등 각종 지표가 달러화의 추가 약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LX하우시스

LX Z:in 향호

향호의 새로운 뷰가 되다 뷰프레임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향호 부문 최다 1위 (18회)